

# 예외적 소설 《황진이》와 계획적인 북한 출판시스템

남북 동질성 회복 · 대중성 거론하긴 일러  
역사 해석의 폭 유연해지기도

전영선\_ 한양대 연구교수

일반인들이 북한 출판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하나가 아마도 홍석중의 《황진이》일 것이다. 남측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판매된 최초의 북한 소설로 기록될 《황진이》는 남측에 소개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더니, 남측에서는 처음으로 북측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상한 기록을 남겼다. 최근에는 영화로 만들기로 남북이 합의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학계에서는 남측의 작가 김탁환, 전경린의 황진이와 비교한 연구논문도 나왔다. 이래저래 황진이의 치맛바람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 《황진이》, 남녀사랑 이면에 분명한 '주제의식' 스며 있어

《황진이》가 인기를 모은 첫 번째 이유는 작가의 탁월한 글솜씨에 있었다. 《황진이》의 저자 홍석중은 어떤 인물인가. 조선문학창작사 소속 작가로서 《임궏정》을 쓴 벽초 홍명희의 손자이며, 향가 해석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한문학의 대가인 홍기문의 아들이다. 홍석중은 홍명희의 뒤를 이어 《임궏정》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포왜란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늪새바람》을 통해 작가로서 명성을 확인한 바 있다. 《황진이》에서도 홍석중의 가풍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화 하나하나 묘사 하나하나에도 풍부한 역사적 지식과 탁월한 감각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정작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풍부한 고사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의 농익은 글솜씨만이 아니다. 《황진이》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북측의 출판물을 남측에서 접할 수 있다는 호기심이 작용한 데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내용 묘사였다. 소설 《황진이》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도 '아니 북한에서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선부르게 《황진이》를 보면서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

이나 대중성을 이야기하는 논의도 있다. 과연 그럴까? 《황진이》를 보면서 북한문화, 북한출판의 보편적 특성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황진이》는 북한문화, 북한출판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역사소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황진이》는 '황진이'를 소재로 하면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양반가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위선을 드러내면서도 하층민들의 양심과 도덕성을 드러내는 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황진이》의 매력은 이 주제 의식이 홍석중의 농익은 글솜씨 속에 스며들어 경직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주제의식을 벗어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출판과 출판물, 당이 통제하고 공급, '인민 사상교육의 수단'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당국의 검열이나 주제의식에 벗어난 출판물은 없는 것일까. 가끔 북한에서도 소위 '빨간책'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대답부터 말한다면 북한의 출판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출판물은 교양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로서 모든 것이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생산되고 유통된다. 먹고 입을 것만이 아니다. 보아야 할 것이나 들어야 할 것도 국가에 의해 공급된다. 출판물은 바로 인민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북한에서 출판물은 교양자료이지 상품이 아니다.

출판물에 대한 관리는 인적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창작기획, 검열, 인쇄, 보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간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일정한 조직 안에서 작가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창작 방향을 제시하고, 창작된 작품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며, 국가 조직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한다. 이익이 난다고 해도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기관이 모호하다.

국가가 바라는 것은 책의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인민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상교양물로서 출판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종자와 속도전이다. 종자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감을 잡아내는 것이며, 속도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당의 방침이 정해지면 당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글감을 잡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여 인민들에게 보급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당사업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당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인민의 눈높이에서, 한자어는 가라 ... 16가지 서체


출판물의 편집에서 인민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도 출판물의 사상교양 기능의 중요성 때문이다. 인민성이란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판보도의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서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체를 조절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여도 인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에 철저하게 인민의 관점에서 용어와 문체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출판물의 언어는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결정된 원칙을 따르는데, 말다듬기 사업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한자어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풀이말로 한다' '외래어는 고유어로 대체하고,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우리말로 고친다' '정치용어는 사상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한자어라 할지라도 수정을 금한다' '과학기술용어 및 대중화된 한자어·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자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적 자존심, 문화침투로 보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1999년 남한의 주민등록에서 한글과 한자병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친일' '매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문화침탈로 보도하기도 하였던 것은 북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판물의 서체로는 청봉체와 천리마체가 있다. '청봉'은 양강도 삼지연군 이면수 노동자구에서 조서해 놓은 '청봉밀영'에서 따온 용어이며, '천리마'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표시인 '천리마운동'에서 따온 용어이다. 청봉체는 붓글씨를 원형으로 한 청봉1호체와 청봉2호체, 청봉3호체, 청봉4호의 4종류가 있으며, 신문, 잡지의 제목이나 인용문, 구호, 선전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천리마체는 1호부터 14호까지 있으며 서체에 따라 대소로 구별되는데 천리마 1호와 천리마 3호는 각각 대소가 있어 실제로는 16개의 서체가 있다.

### 인민의 눈높이에서, 한자어는 가라 ... 16가지 서체

최근에는 서예의 물결체를 응용한 다양한 서체와 선이나 점을 장식적 기법으로 활용한 서체, 립체장식법이나 무늬장식법, 비화적기법으로 다양하게 창작된 서체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북한 출판계도 '고난의 행군'을 겪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지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족사,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이다. 출판물을 포함하여 북한 문화의 중심이 선군정치를 축으로 한 '총대중시'와 '결사옹위'의 주제에 있으며, 작품의 패턴 역시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조선 말기의 애국적 명장 성기'를 소재로 한 신구현·리규준의 《피문은 청동단검》(금성청년출판사, 2002), 강학태의 《최무선》(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0)이나 사육신을 소재로 한 립종상의 《사풍》(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등은 민족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풍》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인물로 평가절하하였던 양반계층의 인물들을 '봉건충신'이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의 폭이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글을 쓴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객원연구원, 신구전문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한양대, 함성대, 명지대, 한세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사회문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전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문의 이해(공저)', '북한의 문학과 예술', '북한을 움직이는 문예예술인들' 등이 있다.